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 표선면 지역을 중심으로 -

정희종*

<차례>

1. 서론
2. 제주도 상례의 특성
 - 1) 상례절차에 포함된 민간신앙
 - 2) 초혼과 재례 중심의 절차
 - 3) 일포의 의미
 - 4) 비용 공동분담
 - 5) 귀양풀이
3. 표선면 지역 사례
 - 1) 표선리 상례 사례
 - 2) 성읍1리의 상례문화 변화
4. 상례문화 변화 양상과 의미
 - 1) 장례주관자의 소멸
 - 2) 탈상기일의 단축
 - 3) 공동체 규범의 약화
 - 4) 풍수사상의 약화
 - 5) 장례놀이, 전통음식의 소멸
 - 6) 의례 공간의 변화
 - 7) 부정 및 액막이 관습
5. 결론

국문요약

제주도 상례문화는 다른 지방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식 제례 형식을 중시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 일포날에만 손님을 맞이하고 문상을 하는 풍습, 장례비용 공동분담, 장사지낸 날 귀양풀이를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례문화는 조선 시대 이후 유교 의례와 무속의례가 혼합되고, 지역적인 문화 풍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졸업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례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다. 상례 기간이 급속하게 단축되어 삼년상은 이미 80년대 후반에 사라졌으며, 최근에는 100일 탈상, 49재 탈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마을마다 존재하였던 장례 주관자들이 소멸되고, 전문적인 장의사들이 제주도내 모든 마을에 침투하여 장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장례는 개인의 일이면서 또한 마을 공동의 일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 규범이 생겨나고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현상도 약화되고 있다. 풍수사상, 조상숭배 사상의 약화는 장묘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마을 공동묘지 이용이 보편화되고, 화장, 납골당으로 장례를 마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상여가 없어지면서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놀이문화도 사라졌으며, 전통적인 장례 음식도 현대화되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농촌공동체의 해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키워드 : 제주도, 상례문화, 유교 의례, 무속 의례, 일포, 공동묘지, 장례, 장묘문화

1. 서론

상례¹⁾는 보편적인 문화이지만,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으며, 변화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상례문화는 상례 절차뿐만 아니라 상례를 둘러싼 제반 요소와 현상들의 종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시신처리를 위한 장례를 포함하여 죽음에 대한 관념, 타계관, 다양한 의례, 가족 및 친족집단간의 상호작용,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현상들이 상례문화에 포함되어 있다.

친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사회에서 상례는 아직도 보수적인

1) 상례는 장례를 포함한 개념이다. 장례는 입종부터 매장까지, 상례는 장례를 포함하여 입종부터 탈상까지의 의례를 포함한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²⁾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종교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무속의례인 귀양풀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례로 비중 있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무속신앙의 토대 위에 유교 의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교와 무속의 조상숭배 사상 혼합, 유교의례와 함께 민간신앙에 따른 의례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은 유교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기존의 토착문화와 융합된 결과라고 하겠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마을마다 상례와 관련된 일을 많이 알면서 직접 의례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장의사들이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 치르던 장례가 도시의 장례식장, 또는 마을 공동묘지에 만들어진 장례시설에서 치러지면서 의례공간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화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납골당(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에서의 3일장 문화가 농촌에도 침투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 글은 제주도 농촌사회에서의 상례문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지역의 문화 형태에서 다른 면이 지속되어 왔다.³⁾ 특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쪽지역에서는 도시문화의 농촌 침투 현상, 농촌의 도시화 현상이 남쪽보다 빨리 진행되어 왔다.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표선면

2) 제주도에 유교식 장례가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 태종과 세종대의 기록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삼년상을 치렀다고 나와 있으며, 17세기에 제주 목사를 지낸 이원진의 「탐라지」, 18세기 이형상의 「남한박물」에 제주도의 상례에 대한 약간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3) 예를 들면 상례를 치르면서 북쪽 지역에서는 일포날의 저녁식사를 큰 딸이 담당하여 다른 딸들보다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것, 남쪽 지역에서는 장례날의 아침과 점심 식사를 딸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며, 남쪽 지역에서 일포날 손님 접대 음식으로 국수를 만드는 것 등과 같은 다른 현상이 있다.

은 제주도내 도시문화의 중심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조선시대 정의현이 있었던 지역으로 전통 의례와 민속문화 전통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반면에 1990년대 중반 남제주군에서 추진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으로 상례문화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지금도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⁴⁾

표선리는 면소재지이면서 제주도 동남부 지역에서도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장례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 표선면과 인근의 남원읍, 성산읍 일부 마을의 장례를 이 두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성읍리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상여로 운구할 정도로 전통적인 면이 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공동묘지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등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천리는 1970년대 공동묘지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내에서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한 장묘문화가 일찍이 정착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대 가정의례 간소화 추진 우수 마을로 포상을 받았으며, 제주도내 자생 신흥종교인 삼천교가 생겨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제주도 농촌의 상례문화 특징과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7년 12월 및 2008년 7월 표선리에서 행해졌던 장례에서 참여하여 유교식 절차와 귀양풀이를 관찰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상제(喪制)⁵⁾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를 하였다. 상례는 가족을 중심으

4) 캠페인은 비용간소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서귀포 지역에서 성산포 지역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문상하러 온 손님들에 대한 식사 대접으로 국수를 제공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5) 제주도에서는 상주(喪主)보다는 상제(喪制)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상주는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맏아들뿐만 아니라 상을 치르는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

로 치러지는 의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여 상례의 전 과정을 관찰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만상제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는 하였지만 상제 모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특히 여성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다. 따라서 조사는 의례와 장례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례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만상제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의례의 의미와 성격, 해석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표선면내에서의 각 마을에서의 상례문화 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토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한 인원은 표선리 5명, 하천리 8명, 성읍1리 7명, 토산리 2명, 가시리 1명, 성산읍 신평리 1명이다. 각 마을에서의 장례주관자에 대한 면접을 비롯하여 공동묘지 이용의 변화, 의례, 탈상기일, 상여, 공동체의 대응, 부조와 답례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상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생의례에 대한 현지조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과물들이다.⁶⁾ 김영돈(1966)은 제주도민의 통과의례를 다루면서 상례에 대한 조

별히 상주와 구분하지 않는다.

6)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제주도 상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3호, 문화재관리국, 1966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1974

현용준, 「제주도의 상제, K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김기태, 「제주도 상례의 실태와 그 특색」,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최재석, 「장례와 친족조직」,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사를 하였다. 김영돈의 조사는 제주도민의 산육, 혼례, 장례와 제례 및 속신, 민요, 자장가와 상여소리, 무속의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⁷⁾ 이광규(1974) 역시 출산의례, 산후의례, 혼인의례, 장제 및 제례 등 통과의례를 조사하면서 상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현용준(1977)은 제주도의 상례가 유교의례를 형식으로 치러지지만 무속의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례 외에 제사, 명절, 묘제, 상제(喪祭)와 친족의 범위, 상속과 제사 등 제주도 상례의 특수성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마을조사 결과를 정리한 학술조사보고서에 김기태(1977)가 상례를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최재석(1979) 역시 마을 조사를 통하여 장례 절차를 기술하고, 특히 제주도의 특수한 가족제도와 장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현승환(1977)은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에서 제주도 상례와 제례 절차에 대하여 반 진넵(Arnold van Gennep)의 분리의례, 전이의례, 통합의례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제주인의 일생』(2007)에서도 상례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고부지는 제주도민의 복식을 연구하면서 상례복에 대하여도 고찰한 바 있으며(1984, 1985), 강문유(1990)의 제주도 상여노래에 대한 연구도 있다.

두 번째로 제주도의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도에는 산담과 동자석이라는 특이한 장묘문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 김유정의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2003), 김유정, 손명철의 『제주의 무덤』(2007), 임경화의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2007) 등이 있다. 또

7) 김영돈의 조사 연구 내용은 197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의 민속 I』(1993년)을 비롯하여 제주도교육청 등의 자료에 인용되었으며, 또한 각 마을에서 발간한 향토지에도 인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주도의 토롱 풍습에 대하여는 고정하의 「제주도 상·제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2004)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상례를 중심으로 상례 절차와 그 의미,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 사회 기능적 현상, 상례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 것이다. 이외에 상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성

제주도 농촌의 상례는 조선시대 유교 상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현대에 들어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 등의 영향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조사 자료와 표선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례에 참여하여 관찰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례 절차에 포함된 민간신앙

제주도 상례에는 유교의례와 함께 무속의례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임종부터 매장까지는 유교 의례로 진행하지만 매장한 날 집에 돌아와서 무속의례인 귀양풀이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귀양풀이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아직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례로 인식되고 행해지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는 혼을 건지는 무혼굿도 보편적으로 행해졌었다.

“남편이 남영호 사건으로 돌아가부난, 굿 해영, 동네 심방 데령 앞바당

강 곳 해여그네, 곳 허멍 머리빚, 열래기 가정 강 혼 건지레 가신디, 불은텐 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 올라오란, 혼 만 건정 오랑, 적삼에 놓앙 혼 오랏텐 허영, 상에 올려 노앙, 비석은 그 뒷 해, 비석 밑에 명정하고 같이 깔앙 지냈주” (토산리 김오생씨, 77세, 2008.9.20 녹취)

1960년~1970년대의 상례에서는 민간신앙과 무속의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돌 아궁이를 막는 것⁸⁾, 조관(造棺)할 때 까지 팔죽을 쑤어서 먹는 것⁹⁾은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풍습이며, 염습(殮襲)할 때에 떡¹⁰⁾을 시신(屍身)에 놓는 것, 출구(出柩)할 때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로 나가는 것¹¹⁾, 출구(出柩)할 때 관(棺)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¹²⁾, 출구하고 나

8) “별세 직후 온돌 아궁이는 잘 막아야 하며 불이 있으면 이를 끌어내 버려야 한다. 만약 온돌을 잘 맞지 않아서 고양이가 온돌에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는 속신이 있다.”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3호, 문화재관리국, 1966, 708쪽

9) “옛날 어느 대감 집에 우둔하고 몰염치한 이가 살았었다. 얼마나 몰염치했는지 동네에 장사가 나가면 하면 상가에 가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 치우곤 했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의 행패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어느 집의 장사 때에는 조관(造棺)할 때에 팔죽을 쑤었다. 어디 팔죽이야 먹겠는가고 그대로 몰염치한은 나가 버렸다. 그 몰염치한은 사람이 아니라 악신(惡神)인 <명칭이껏>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명칭이껏>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조관(造棺)할 때에는 으레 팔죽을 쑤게 된 것이 굳어진 관례로서 전해졌다. 이 <명칭이껏>은 인간에게 감기도 주는 악귀(惡鬼)임이 밝혀지자 동지날에는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 먹음으로써 이 악귀(惡鬼)의 침입을 막는 습속도 생기게 되었다.” 김영돈, 앞의 글, 712쪽

10) “백미나 메밀로 만든 자그만 떡 9개를 양손과 가슴에 각각 3개씩 넣어 준다. 혹은 떡 6개를 만들어 양손과 가슴에 각각 2개씩 넣기도 하며 6개를 양손에 각각 3개씩 심기는(쥐어주는) 등 그 수효는 일정하지 않다. 이 떡은 저승문을 들어설 때 그 저승문을 지키는 개에게 주어 개를 쫓으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김영돈, 앞의 글, 709쪽~710쪽

11) “예전엔 삼살방(三煞方)이 아닌 방위를 꼭 가려 출구(出柩)했었으니 만약 삼살방이 아닌 방위가 벽일 경우면 벽을 뜯어서 출구했었던 지방도 있다.” 김영돈, 앞의 글, 715쪽

면 방바닥에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것¹³⁾, 입관할 때 땀수건을 넣는 것¹⁴⁾ 등이다. 또한 임종이 가까워지면 죽음의 전조 현상으로 까마귀가 우는 것, 부엉이가 우는 것, 도깨비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¹⁵⁾ 입관을 할 때 방에서 장례 주관자가 밖을 향하여 “○○생(生) 있소”라고 물으면 밖에서는 “없소”라고 대답하며,¹⁶⁾ 부르는 생시가 많으면 각각 일일이 부르고 답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장례 주관자는 “만사가 허사로다”라고 말한 다음 관 뚜껑을 닫는다. 또한 하관할 때에도 살(煞)이 있는 사람은 하관을 보지 못하도록 자리를 피하게 한다.¹⁷⁾ 이외에도 집 밖에서 죽은 경우에는 집 안으로 시신을

- 12) “출구에 관한 속신이 별로 없으며, 바가지도 깨뜨리지 않고, 문지방도 치지 않는다.”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1974, 66쪽
- 13) 2007년 12월 23일 표선리 박원종(1955년생)의 부친상에서 출상(出喪)할 때에 마루 쪽 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하여 운구(運柩)하였으며, 박씨의 친척 아주머니가 관이 놓였던 방에 합지박을 던져서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원종씨는 “상방은 문전신이 있는 곳으로 비린 송장이 나가면 문전신에게 부정타며, 방안에 시신을 놓았기 때문에 부정을 없애기 위해 콩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4) “입관하고 나서 관 안의 빈 곳을 채우면서 상제나 근친들이 조그마한 광목 조각을 넣는다. 이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하도 멀어서 가는데 흐르는 땀을 닦도록 하라는 뜻이다.” 현용준, 『제주도의 상제, K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31쪽
- 15) “까마귀가 꺾게 우는 것은 불행한 전조이다. 아침에 우는 것은 아이의 죽음을, 낮에 우는 것은 어른의 죽음을, 저녁에 우는 것은 노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부엉이도 우는 소리에 따라서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된다. 도깨비불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면 얼마 되지 않아 환자는 죽는다. 차사가 환자의 혼을 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용준, 앞의 글, 329쪽
- 16) “이는 입관할 때에 <강님>이란 <인간차사>가 내려와 땅인과 같은 생갑(生甲)의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찾으려 찾으나 찾지 못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관습이라고 한다.” 김기태, 『제주도 상례의 실태와 그 특색』,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124쪽
- 17) “표선면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하관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 단결하여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면 <인간차사>가

들이지 않고 집 근처에 빈소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옛날에 토산리에 누구네 집에 유월 초사흘날이라, 며느리가 빨래허랜 갔당 빠정 죽었주, 건져왕 시아방이 집안에 들영 영장을 지내신디, 그 해에 그 집이 온창 망해그네, 사람들이 며느리 영장을 집 안에 들영 망했덴 곱앙 했주” (김오생씨, 토산리, 77세, 2008.9.20 녹취)

이러한 풍습들은 1960년~1970년대의 상례에서 조사된 것들이며 현대의 상례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라진 것들이 많다. 유교 의례가 공식적인 절차라면, 이들 민간신앙적인 요소들은 비공식 절차로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¹⁸⁾

또한 택일(擇日)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의 경우 마을 내에 거주하는 정시¹⁹⁾에게 의뢰하여 택일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철학관에서 날을 택한다. 풍수 사상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택일의 전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봉분이 완성되고 나면 묘지에서 초우제를 지내는 것도 보편적이다. 우제(虞祭)를 행하는 이유는 백(魄)이 땅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혼(魂)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한다고 생각하여 혼을 불러 초우, 재우, 삼우 세 번 제사를 지내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다. 유교 상례에는 장례 당일 집에 돌아와서 초우제를 지낸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장례 당일 봉분

내려왔다가도 아무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김기태, 앞의 글, 127쪽

18) 개떡을 만드는 것, 충호법, 팔죽을 먹는 것, 출구할 때 주의하는 것, 출구할 때 그릇을 깨뜨리고 콩을 뿌리는 것, 살이 있는 사람은 입관, 하관을 보지 않는 것, 집 밖에서 죽었을 경우 시신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등은 지금도 남아있는 풍습이다.

19) 지관(地官)을 제주어로 정시라고 한다. 풍수지리에 따른 집터나 묘터를 정해주는 일을 비롯하여 경조사와 관련된 택일을 해주는 일을 한다. 현재 표선리에는 한 명의 정시가 있으며, 표선리를 비롯하여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택일을 의뢰하면 5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택일지를 써주고 있다.

을 쌓고 나서 묘소 앞에서 초우제를 지내고 있다. 이는 장례 당일 저녁에 귀양풀이를 해야 하므로 초우제를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다. 무속을 배척하는 유교의 입장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지만 제주도 상례에서는 충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 하관을 앞두고 토신제를 지내는 장면 (2007.12.23)



(사진 2) 봉분을 완성하고 나서 바로 초우제를 지내는 장면(2008.7.30)

2) 초혼(招魂) 및 제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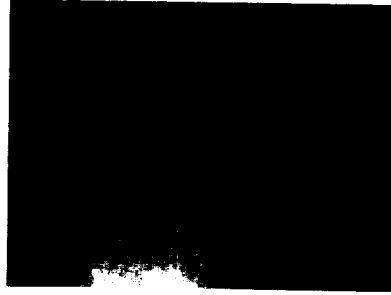
초혼(招魂)은 각 지역마다 행해지고 있는데, 혼을 부르는 시점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선 지역에서는 입관하기 직전에 하고 있으며, 초혼을 하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입관하기 직전에 혼을 다시 부르는 것은 영혼이 자의적으로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²⁰⁾ 또한 흘적삼(혼을 부를 때 사용했으므로 혼적삼이라고도 한다)에 영혼을 빙의(憑依)시켜 혼백으로 여겨서 사령(死靈)으로 모시기 시작한다. 흘적삼을 시신의 얼굴에 덮어 두거나 머리맡에

20)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8, 22쪽.

놓아두며, 발인할 때는 바구니에 넣어서 혼백상으로 만들어서 만며느리가 지고 간다. 삼년상을 치를 때는 흘적삼을 집으로 갖고 와서 혼백상 밑에 바구니 속에 넣어서 삭망제를 지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집으로 갖고 오지 않고 관을 묻을 때 그 위에 놓고 같이 묻기도 한다. 지금은 관과 함께 묻어버리고 영정사진만 갖고 돌아오며, 영정사진을 모셔놓고 삭망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 3) 혼을 부른 흘적삼을 만며느리가 모시고 있다. 표선리 금촌칠씨 덕 장례에서 (2008.7.27)



(사진 4) 혼을 부른 흘적삼과 12매듭으로 묶은 시신. 표선리 금촌칠씨 덕 장례에서 (2008.7.27)

제주도의 상례는 성복제, 일포제, 발인제, 하관제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다. 유교 상례는 망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과 동시에 망자의 영혼을 조상신으로 만드는 절차로 치러진다. 즉, 조상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만들어서 사당에서 조상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 절차에서 망인을 위하여 올리는 의례는 제사가 아니라 전(奠)이라고 표현된다. 망인의 영혼이 조상신이 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제사가 아니라 전이라는 형식으로 의례를 치르며, 성복전(成服奠), 일포시조전(日晡時祖奠), 견전(遣奠) 등으로 되어 있다. 매장이 완료되어 신주를 만들어 집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우제(虞祭)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상례에서는 전(奠)이 아니라 제(祭)라고 표현하고 있다.²¹⁾ 우제 이전의 의례를 제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교 상례를 받아들여진 민간에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의례를 치르면서 제와 전을 구분하지 않고 표현해 온 것이다. 민간에서 상례를 행하면서 『사례편람』과 같은 예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행위 전승을 통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이다.

또 하나는 양반 계층에서는 신주를 만들어서 사당에 조상신으로 모시나,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내에서도 극히 일부 가문에서 사당을 만들어서 조상신을 모셨을 뿐, 대부분 사당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나마 존재해 왔던 일부 사당들도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다. 제주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당을 만들지 않았으며,²²⁾ 사당을 만들어서 유교의 조상숭배에 입각한 상례를 치르기 보다는 민간에서는 뿌리 깊은 민간신앙과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서 상례를 치러 왔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 일포의 의미

제주도의 상례에서 일포제를 지내는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로

21) 제(祭)와 전(奠)은 의미상에서 차이가 있다. 제는 조상신을 대상으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전은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음식과 제물을 차려서 바치고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엄밀하게는 구분된다.

22) 성읍1리의 강○○씨의 경우 예전부터 사당을 만들지 않았으며, 제각(祭閣)을 만들어서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문중에서 책임자를 두어 관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여겨지고 있다. 일포날은 공식적으로 문상객들을 받는 날이며, 이 날 외에는 문상객들을 받지 않는 풍습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 문상객들도 이 날 상가에 가는 것이 예의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성복이 끝난 다음날부터 상여가 나가기 전날까지 문상객을 받는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일포날이 정식으로 문상객을 받는 날이다. 성복을 했더라도 일포날이 아니면 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일포제의 유래에 대하여는 『사례편람』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례편람』에는 천구(遷柩)라는 절차에서 발인 하루 전날 사당에 영구를 옮길 것을 고하고, 영구를 사당에 인사시키며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싣고 견전(遣奠 : 발인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전)을 올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당이 없는 경우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일포시(日晡時)’가 되어 올리는 조전(祖奠)만 남게 되며, 이 절차가 ‘일포제(日晡祭)’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포제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신시(申時)에 지내는 데 다음날 집을 떠나서 장지로 간다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이며, 제를 지내는 제관은 상제들이 아니라 복친이 주관한다. 상제들은 망인 앞에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망인을 보내는 의례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선리에서 직접 장례를 주관해 온 금촌칠씨는 일포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포는 제(祭)가 아닙니다. ‘내일 장지로 나갑니다’라고 고(告)하는 것 뿐이지, 제도 아니고, 일포제는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오란 보기도 하고, 와서난 일포로 해서 지내는 것이난, 초제 전에는 제가 아님주게. 초제는 영장 끝나서 지내는 초우제입니다. 일포 전에는 문상하러 가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만 한, 두 명 오지, 일반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수눌음으로 상이 들었으니 일 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서 서로 서로가 도우면서 하는 거난, 일포제라 해서 집에서 제를 지내는 겁주게, 옛날에는 동네 분들이 와서 같이 도우며 하니까, 그래서 일포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다.” (2008.08.01 녹취)

일포는 발인하기 바로 전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제들로서는 망인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며, 이웃 주민들도 장례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날이다.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부족한 시절에 발인하기 전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상을 하고, 또한 상제들도 이 날 음식을 준비하여 다음 날 수눌음으로 일을 도와주는 이웃사람들에게 미리 접대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이 날 상가에서 밤을 새면서 화투나 장기, 바둑, 윷놀이 등을 떠들썩하게 노는데²³⁾, 일포날은 망인을 위하여 또한 상제들을 위하여 일부러 놀아주어야 한다는 인식과 풍습이 있다. 죽은 이와 더불어 같이 놀이를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포날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문상하면서 장례 준비를 하던 전통이 고착화 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도 일포날에 문상하는 것이 올바른 예의라는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날 장례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음식으로 사례를 하는 공정(功情)을 한다. 주로 관을 만든 목수, 지관에게 사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돼지고기 삶은 다리 한쪽, 떡, 생선, 술 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주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현금으로 대체되었다.

“옛날에는 목수 벌영 관도 짜고, 개판이란 거 다 하고, 지금은 돈주고 다 사지만... 목수 벌영 허민 일포에 공정을 할 때 상제들이 떡을 해 오면

23) 대표적인 것이 녁동배기라는 윷놀이이다.

목수에게 도새기 혼 다리, 떡 일곱가지 해그네, 일곱가지 떡은 제편(침떡), 술변, 절변, 인절미, 중계, 약계, 과질까지 해서... 술 한 병, 생선도 하나 놓고 경 행 갖다 주어수다. 상제들이 한가지씩 다 해오민, 상제가 없으면 혼자서 다 하고..." (표선면 토산리 김오생씨, 77세, 2008.09.20 녹취)

하천리와 성읍1리의 조사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공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제사를 지낼 때에도 보답으로 일정한 음식을 나눠주는 전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마을에서 이웃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4) 비용 공동분담

제주도에서는 상·제례의 비용을 자식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만상제가 상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지만 장례 비용은 여러 상제들이 적절하게 분담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자식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상속 보다는 공동 분배하는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족 구조에 있어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한 재산도 자녀들에게 공동 배분하고 제사 역시 아들들이 나누어 갖는 전통이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상례에도 적용되어 아들과 딸 구분 없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문화를 낳았다.

제주도의 상례에서 딸들도 평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독특한 현상이다. 여성들이 출가하였다고 하여 친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이후에도 친가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직접 노동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딸들도 친가의 상례에 공통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딸들의 장례 비용 분담은 예전에는 장

너가 더 많이 부담하는 차등을 두었으나, 지금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예전에는 딸이면 조반상제, 점심상제 했는데, 요새는 똑 같이 합니다. 설러분지가 한 15년, 20년 되수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녀 부모니까 부모 밑에 한 자식이라고 하여 똑같이 부담해수다. 부친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딸들, 아들들 다 부조를 해십주, 큰 딸은 조반하고, 셋딸은 점심하고, 작은 딸 필역하고,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사이의 공간 음식하는 것은 일가들이 모여서 하고, 손자들이 많으니까 손자들도 하고 그렇게 해수다” (김옥희씨, 표선리, 63세, 2008.6.20 녹취)

또한 여성들은 장례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²⁴⁾ 발인하여 운구할 때 맏며느리 또는 큰딸이 망자의 혼백상을 짚어지거나, 영정사진을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상여로 운상할 때에는 동네 여성들이 설베를 매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장지까지 같이 갔으며,²⁵⁾ 장지에서 도 때와 흙을 운반하는 것을 돕거나 음식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 귀양풀이

귀양풀이는 봉분을 만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초우제를 행하고 집에

24) “상가에 여자가 참가하는 것, 장지까지의 장례행렬에 여자 상제, 여자 친척이 참가하는 것, 혼백상을 며느리가 지고 가는 것 등의 현상은 육지에는 없는 것이며, 남녀의 사회적 격리사상의 약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재석, 「장례와 친족조직」,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323쪽

25) 상여 행렬은 명정-혼백상-만장-설베-상여-상제-복친-친구의 순서로 나아간다. 상여 앞에는 설베라 하여 양쪽으로 광복을 길게 연결하여 마을 부녀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잡고 걸어갔다.

들어와서 그날 오후에 심방을 불러와서 하는 무속의례로서 제주도 농촌 사회에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귀양풀이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이라고 간주하고 매장한 날 밤 심방을 불러서 죽은 이의 심정을 듣고 부정을 풀어내는 것이며,²⁶⁾ 또 하나는 차사를 불러서 영혼이 저승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귀양풀이를 통하여 상제는 망자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 ‘영개울림’²⁷⁾을 통하여 상제들은 망자의 영혼이 모든 원한을 풀고서 저승길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영혼을 탈 없이 저승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상중(喪中)이라는 슬픔과 혼동, 고통의 상태에서 새로운 조화와 평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귀양풀이의 주체는 심방이다. 심방이 의례를 집행하며, 망자의 영혼과 상주는 심방을 통하여 소통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유교 상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영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무속과 다르며²⁸⁾, 영혼과 상제를 만나게 하는 존재(심방)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제들은 죽음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귀양풀이를 통하여 물리치게 된다. 죽음을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 준 직접적인 슬픔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떠한 액운이 닥칠 수도 있다

26) 현용준, 앞의 글, 364쪽

27) 영개는 영혼(靈魂)이며, 울림이란 ‘울음’이란 뜻으로 ‘영개울림’은 ‘영혼의 울음’이란 말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심방의 몸을 빌어서 말을 한다는 것으로 무혼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385쪽~386쪽.

28) 유교에서는 영혼은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무속에서는 이승을 떠나 저승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은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귀양풀이가 하고 있다.

3. 표선면 지역 사례

1) 표선리 상례 사례

2007년 12월 박원종씨의 부친상과 2008년 7월 금촌철씨의 모친상 사례를 통하여 표선리에서의 상례 특성과 변화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사례 모두 표선리에 있는 장의사를 불러서 소렴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초혼을 하는 시기는 입관 직전이며, 그 이전까지 소렴과 대렴 절차에서는 상제들이 울음을 울지 않고 엄숙하게 의례를 진행했다. 대렴이 끝나고 초혼을 하고 나서야 상제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로소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민간 신앙의 전통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개떡을 만드는 것,²⁹⁾ 택일지를 보면서 '○○생 있소'라고 외치면 '없소'라고 대답하는 것, 입관하고 나서 12매듭을 푸는 것, 입관하고 나서, 관을 택일지에 써있는 방향(금촌철씨의 경우는 동남쪽)으로 돌려놓는 것 등이다.

29) “개떡은 귀신이 개가 따라간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나갈 때 일곱 개를 하는데, 출상하여 나갈 때는 던져버립니다. 출상하기 전에는 상 밑에 놔둡니다. 나갈 때는 개떡을 던져 불고, 이번에는 공동묘지 영안실에 모셨으니까 개떡도 그 곳에 놔둡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에게 개가 서로 맞질 안해서 개가 와서 짓고 날 뛰고 야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옛날 어른들 해 왔던 풍습인데, 상례상으로는 없고, 제주에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개떡을 만듭니다.” (표선리 금촌철씨 녹취 2008.8.1)

또한 금촌칠씨의 경우 장례를 치르는 시기가 여름이어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안에 관을 놓지 않고 공동묘지에 있는 냉동실로 옮겼다. 관 위에 흘적삼, 명정 등을 올려 놓고, 개떡을 함께 냉동실에 옮겨 놓은 다음에 집에 따로 혼백상을 차려서 문상객들을 받았다.

금촌칠씨의 경우 정의향교에 다니면서 유학에 대하여 학습하고, 표선리 마을 포제에서도 헌관으로 제의를 집행할 정도로 전통 제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 그래서 성복, 일포, 발인, 하관 등 중요한 절차마다 형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례를 치렀는데, 특히 초혼 의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입관 직전 초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울음을 터트리지 못하도록 단속하였으며, 초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제들이 곡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에 전승되어 온 개떡, 입관 및 하관을 보지 못하는 생년(生年), 봉분을 다 쌓고 나서 초우제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귀양풀이를 지내는 것 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유교의례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민간과 무속 의례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원종씨와 금촌칠씨 모두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후에 귀양풀이를 하였다. 유교의례와 함께 전통적으로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습과 속신이 표선리의 상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풍수사상은 대단히 약화되고 있었다. 관이 안치될 방향과 하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공동묘지를 이용함에 따른 풍수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박원종씨는 가족묘지에, 금촌칠씨는 표선면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금촌칠씨의 경우 1988년도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토산리 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한다. 그 때에는 토산리 공동묘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믿던 시기였

다.³⁰⁾ 그래서 표선리에도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상여로 운상하여 약 10km 이상 떨어진 토산공동묘지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풍수를 따지지 않고 표선면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례의 주요 절차는 유교 의례를 거행하는 것이지만, 시신을 잘 모셔서 후손들에게 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내 왔던 속신에 따른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 박원종씨는 이층에서 지내던 부친을 임종이 가까워지자 서둘러서 아래 층 안방으로 모셨다. 돌아가신 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관습을 지키는 현상이다. 또한 발인하여 대문 밖으로 나아갈 때 손자를 바다에 엮드리게 하고 그 위로 관이 지나가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기복신앙의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관이 놓여 있었던 방 안에 그릇을 깨뜨리고, 팔을 뿌리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신’이 있었던 장소는 ‘부정 탄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장지에서 하관과 평토를 하고 나서 만상제가 마지막 하직배를 올리면서 명정과 흘적삼을 같이 묻도록 건네주는 것, 토신제를 하고 나서 잡식한 것을 무덤 네 귀퉁이에 묻는 것, 관 위에 동심절, 삼, 흘적삼 등을 올려놓고 같이 묻는 행위 등도 부정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금촌칠씨의 부인은 해마다 무속의례인 ‘문전칠같이’를 해 왔으며, 표선리 분향당에 기일마다 제를 지내러 다니기도 했다.³¹⁾ 또한 금촌칠씨

30) 토산리 공동묘지는 망오름에 있는데 풍수지리가 좋다고 하여 토산리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표선리, 가시리, 하천리 등 많은 마을에서 운상을 하여 찾아왔다고 한다.

31) “분향당은 사람이 아프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여 가서 비는 곳이우다. 포제는 옛날부터 이 지역을 위한 제사인데, 땅을 매어서 이녁 사는 고향을 좋게 해달라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분향당이란 자식이나 부모가 아프면 가서 비넘히는 곳이다.” (표선리 금

는 유교 제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만 무속신앙과 무속의례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녀들과 가족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유교와 무속을 서로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하지 않고 현세기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상례를 치르면서도 죽은 영혼과 함께 상제들을 위한 의례와 기원에 비중을 두고 전통적인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례와 관습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액을 막겠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탈상 기일에 대하여는 박원종씨는 일년상을 치르기로 하고 초하루날과 보름날에 삭망제를 꾸준히 하였으며, 금촌칠씨는 증손녀의 결혼 때문에 백일 탈상을 하였다.

2) 성읍1리의 상례문화 변화

(1) 마을개관

표선면 성읍1리는 1423년 정의현청이 성산면 고성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설되면서부터 성읍리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해에 정의향교가 고성리에서 이설되었다. 1609년 행정개편으로 정의현 좌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 면 경계를 다시 확정하면서 표선면에 편입되었다. 1984년 6월 7일 국가에서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하였다. 약 500년 동안 (1423~1914)의 정의현청이 있었던 도읍지이면서 많은 유형, 무형문화재가 밀집되어 남아 있어서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

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1,291명(남자 648명, 여자 643명), 505세대가 살고 있다. 농가가 330가구이며, 상업 및 기타가 175가구이다. 다른 마을보다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은 성읍1리가 민속 마을로서 1970년대부터 관광지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감귤, 당근, 감자, 콩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업소(식당, 토산품판매, 건강보조식품판매 등) 경영 및 종사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이다.

(2) 상례문화의 변화

가. 상례 조직의 변화

성읍1리에서는 1960년대 이전에 상이 났을 때는 친척, 이웃사람, 같은 동네 사람, 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치렀다고 한다. 마을 안에 일이 생기면 마을 구성원들은 당연히 문상을 가고 장례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의무이자 관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분위기였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례에 참석했다고 한다. 성읍1리의 송순원씨(1943년생)의 경우 1967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이 때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만든 '바육꼬지'(약 30cm 길이 대나무 꼬지에 돼지고기 넉 점을 끼운 것)가 500개 넘었다고 한다. 상가의 경제력에 따라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수 있으나 마을 내에서는 상여 운반, 매장, 산담 조성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다.

197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성읍1리에서 '골' 단위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³²⁾ ‘골’ 안에 장례가 생기면 각 집에서는 만사 제쳐놓고 한 사람씩 운상, 매장, 산담쌓기를 치러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었다. 보통 한 골을 동원하지만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싶을 때는 마을안 가구 전부를 동원하는데 이를 ‘골 칭한다’고 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장례가 있었다고 한다. 골 칭하는 경우는 장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상과 산담 쌓는데 많은 노역이 필요할 때이다. 상여를 매고 가다가 중간에 교대를 하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묘터가 산위 높은 지역에 있을 경우 산담을 쌓는데도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³³⁾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골을 칭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성읍1리는 7개 반³⁴⁾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각 반 단위로 장례 및 혼례 등 큰일을 치르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예전의 20개 반을 통합하여 현재의 7개 반이 되었으며, 마을 총회에서 각 반별로 혼례와 장례 등을 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반별로 기금을 만들어 천막 및 식기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 단위로 하는 것은 그 이후, 80년대 이후다. 자꾸 사람 빌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새마을운동을 해 나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20 몇 개 반이었다. 그것을 통합하여 7개 반으로 만들었주게, 7개 반으로 만드니까 반끼리 야유회가고,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32) 김영돈 교수에 의하여 실시된 조사 결과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탐라문화』 2권부터 4권까지 조사 내용이 실려 있으며,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4권에 실려 있으며, 골 조직은 상골, 하골, 동골, 서골로 구분하였다.

33) 성읍1리에 있는 영주산 정상에 묘가 하나 있는데 산담을 쌓을 때 많은 장정들이 동원되었으며, 돌 한덩이 운반할 때마다 돌래떡 하나씩 주었다고 한다.

34) 1반부터 8반까지가 있으며, 4반과 5반은 통합하여 총 7개 반이다. 현재 성읍1리에서는 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큰 일 나면 반에서 하자, 이것이 마을 총회에서 결정해서, 답례품 하자말자 하는 것도 마을 총회에서 결정했다. 경 해난 반별로 하고 있다. 어느 반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마을 총회에서 하고 있지.”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2008.9.1 녹취)

성읍1리는 현재와 같이 관광지가 되기 이전에는 농업이 주요 생업이어서 별도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으며, 마을 내에서 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공동 노동 또는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공동체적인 관계가 경제적인 상호교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이 나면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 친목계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음식 만들기와 손님접대 등 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성읍1리가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 외에 상업이 주요 경제활동이 되어 있음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농사에만 종사할 경우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으나, 상업 활동을 하면서 시간에 제약을 받고, 또한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보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풍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운상 방법의 변화

2000년 까지 상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4개 동(현재는 7개 반)으로 구분되어 각각 상여가 있었으며, 관리를 해 왔는데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서 관리비용을 충당했다. 같은 반원이 사용할 때와 다른 반원이 사용할 때 사용료에 차등을 두었다. 현재 상여는 1개가 남아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정의골 축제’ 때 행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나무로 상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하고 나서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새로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나무 대신 철물로 뼈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천을 씌웠다. 차대는 나무로 하고, 차대 묶는 줄은 말총으로 했지만 지금은 만드는 사람도 사라졌으며, 나일론 줄로 한다.

상여는 처음 나갈 때는 고인과 가까운 친척, 긴밀한 친분 관계있는 분들이 이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한번 메어 드리고 싶다’면서 메고 가나, 구간마다 교대를 하며, 먼 거리로 갈수록 젊은 층으로 바뀌진다. 상여에 인정(돈)을 꽂으면 상여 운영 기금이나 상두꾼 수고비로 처리하였으며, 상여를 매고 갈 때는 선소리꾼이 앞에 올라타서 종을 흔들며 상여소리를 하면 설배를 지고 가는 부녀자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했다.

상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염불소리’와 같은 조용한 노래로 시작한다. 상여 나가는 날에 동네에 있는 가옥 중에서 ‘문전코시’나 혼례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택일을 한 집, 제사를 앞두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큰소리로 하면 부정 탄다고 하여 조용한 소리를 한다. 동네 어귀를 벗어나면 ‘어거리넝창’을 부르며, 장지에 가까워질수록 빠른 소리인 ‘자진난봉’을 부른다. 천수를 누린 호상일 경우에는 상여소리는 아니지만 ‘삼마동동’(사랑가)와 같은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상여를 매더라도 뒷소리를 받을 젊은 연령층이 없으며, 또한 상여로 운상하는 기회도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여소리가 전승되는 현장도 없어지고, 상여소리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 전승이 끊기고 있다.

“보통 5키로 이상, 많이 갈 때는 10키로 이상 사슴이오름까지 가기도 했
주, 보통 세 탕 이상, 네 탕까지 매영 가주, 설 때 마다 술하고 떡하고 필역이
랭 허영 맥여, 아주머니들도 앞에서 끝까지 가주, 아니 가젠 허민 여자들이

맹겨, 안 가면 돈도 걸고, 돈 걸면 메간 사람들이 갖기도 하고, 동네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여는 옛날에 동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상골, 동골, 하동 3개가 이어나수다. 화단 관리하는 소임이라고 이어나수다. 없는 반에는 임대비 받았 관리했당, 다음에 소임이 나오면 인계해주고 경 해수다. 7~8년 전까지는 상여 맹 가는게 간간히 이섯주, 상여 나가면 상여소리도 올래 밖에 나가면 험니다. 마을 안에서는 조용히 나가기 위해서 슬프게 느린 소리가 이수다. 마을 밖에 나가면 빠른 거 하다가, 장 발이 가까워가면 더 빠른 소릴 합니다. '염불소리'로 시작하다가 '어거리닝창'이런 현계 이수다, 그 다음엔 '자진난봉'이런 현계 이십주, 평장할 때는 그거 밖에 안합니다. 현장에 가면 흙 팔 때 하는 진토굿소리가 있고, 흙을 멩텅이에 담이수다, 장난 삼앙 밧으멍, 비울 땐 복친들이 해주게, 복친들 얼메기젠 쉽게 비우지 못하게 밧앙 담기도 해수다, 봉분 쌓을 땐 달구소리를 합니다. 상여 맨 사람들이 후창을 험주, 노래하던 할머니들도 다 죽어수다, '삼마등등'은 장 날 때 허는 소리가 아니우다, 놀 때 하는 소리우다, 상여 소리는 아니우다, 가정에서 놀 때 많이 해수다." (송순원씨, 성읍1리, 83세, 2008.10.11 녹취)

상여를 맨 앞에서 매는 사람을 '므새기므루'라고 하였다. 산티짚을 두텁게 해서 앞에서 매는 사람들의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한다. 앞에 선 사람들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다. 처음에 상여가 나갈 때는 친척이나 망자와 친한 사람들이 매기도 하나 운상 길이 길어져서 중간에 교대를 할 때는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로 교체한다. 운상하다가 힘이 들면 앞에서 맨 사람들이 버티기도 한다. 상여 뒤에 종을 달아서 종소리가 달랑달랑 나도록 흔들면, 상제들이 잘 모셔달라고 하면서 상여 옆에 끈에다가 돈을 꼽는다. 이 돈을 나중에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서며 키 큰 사람이 뒤에서 들면 앞에서는 밀려서 가기도 한다.



(사진 5) 성읍1리의 1995년도 운상
사진 제공: 성읍1리 강경순씨



(사진 6) 성읍1리의 1995년도 운상
사진 제공: 성읍1리 강경순씨

1980년대 이후 각 반별로 장례를 치를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운상하는데 동원되는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며, 때를 조달하는 사람, 진토하는 사람 등 사람이 모자라기도 하여 때와 진토는 그전날 하기도 했다.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서 상여 대신에 1톤 화물차로 운구하기 시작했다.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장례를 치를 인력 부족 현상이 1980년대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부터 일부 트럭을 이용하여 운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상여보다는 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었다.

“서상동에서 영장 댈 사람이 없어 부니까, 영장만 매면 되는데, 허젠 허면 영장 매는 사람, 때하는 사람, 진토도 해야지, 경허니깐 사람이 모자라, 개난 어떻했냐 하면 때를 전날 하고, 진토까지,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 할 수 없이 1톤 화물차에서 운구했주, 경도 했주, 그러다가 이제는 영안실로 간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른 반에서는 안오니까, 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친목이라도 있으면 간다.” (강기숙씨, 성읍1리, 64세, 2008.9.1 녹취)

다. 공동묘지 운영

2001년에 공동묘지에 있는 안치소를 증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영안실과 빈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여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지의 영안실과 빈소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다.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표 1> 성읍리 공동묘지 장례시설 사용 현황

년도	사망자	매장지		장례식장	
		공동묘지	기타	공동묘지 시설	집 또는 병원
2006년	8	6	2(화장)	2	6
2007년	10	9	1(문중 묘지)	8	2
2008년	10	9	1(화장)	8	2

(자료 : 인터넷 사이트 '제주의 마을-성읍리' 게시판에서 편집)

<표1>을 보면 2007년부터 공동묘지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집에서 치르던 상례가 공동묘지로 옮겨서 치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편리하게 상례를 치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농촌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 탈상 시기의 변화

탈상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단축되기 시작하였다. 삼년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행해졌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년상을 하는 것도 감소되고 있다. 탈상시기의 축소는 농촌사회에서 탈상을 둘러싼 규범과 관습이 갖고 있는 구속력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삼년상을 비롯하여 삭망과 삭제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공동체내의 관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성읍1리 경우도 국가에서 가정의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상례를 규제하던 것에 반발하여 전통으로 내려왔던 관습을 유지해 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관습과 전통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년상 안한지는 몇 년 안 되수다, 한 오륙년 전부터, 일년 허당 백일로, 요새는 당일로 탈상햐수다, 하루아침에 어서져 부난, 그 이유는 모름주, 허지 말랜 현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허란 말란 소리 어시 어서져 가난, 한 사람 안하기 시작해 가난, 옛날에 천일이 아방 이장힐 때는 소상이랑 하고 대상이랑 허지 말랜 막으러 다니고 힐 때주, 그 때는 곱양 허기도 해서, 남군에서 간소화 캠페인 힐 때는 일부러 더 허기도 해서, 하루아침에 대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소상도 안하고 백일 탈상으로 변하고, 앞으로는 백일도 안할 수도 이서, 사람이란 게 부모 은공 갚젠 허민 그런 거라도 한 번 해 봐야 하는디, 결혼 시켜주면 지네들만 편안하게 허젠 허민 경허민 안되지, 다 죽어 불면 어서질 거지만...” (송순원씨, 성읍리, 83세, 2008. 10. 3 녹취)

4. 상례문화의 변화 양상과 의미

1) 장례 주관자³⁵⁾의 소멸

농촌사회 상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안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천리와 성읍1리, 표선리의 경우 현재 60대 이상 연령에서 1명씩 남아있을 뿐이며, 실제로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안하고 있다. 이들 장례주관자들이 일을 배우는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배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수받은 것이다. 마을 마다 목수라고 불리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의례를 전수 받고 직접 장례를 주관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실습 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배웠으며, 당시에는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필연성과 당위성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단지 염, 습 절차뿐만 아니라 관을 짜는 것, 장지에서 개광, 하관, 봉분 쌓기, 산담 조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례를 치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실제로 장례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내 농촌 마을 어디에서나 장의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장례 주관자가 사라지고 전승이 끊김에 따라 장례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장례 주관자가 참여할 때는 직접 일을

35) 유교 장례 의례 절차를 전수받아서 마을 내에서 상이 발생하였을 때 의례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장례를 마칠 때 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인물을 말한다. 현대의 장례업에서는 염사(장례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직업을 구분하는 용어로서 제주도 농촌마을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장례를 지도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례 주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하천리에서 장례를 주관했던 송○○씨에 대하여 마을에서는 '칠공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처리하거나, 아니면 상제들을 지도하여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과정을 상제들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상제들이 직접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게 하고, 망인을 정성을 다하여 모심으로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기도 한다.³⁶⁾ 또한 상제들이 직접 의례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감정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고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장의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일을 장의사들이 처리하고 상제들은 단지 관찰자로서 의례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제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관찰만 할 뿐이며, 그로 인하여 망인과 상제들 사이에 일정한 심리적, 공간적 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상제들도 시신 처리 방법과 절차를 모르고 있으며, 그 절차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예전에는 장례도 일상의 영역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치러지는 행사였으나, 지금은 장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의례의 절차와 의미를 모르고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의례의 축소와 생략이 발생하며 또한 장의사들이 주관하면서 지역에 따른 특성도 없어지고 있다.³⁷⁾

하천리에서 장례를 주관해 온 송○○씨는 자신이 해 왔던 의례와 현재 장의사가 하는 의례를 비교해 보면 생략되거나, 변형된 절차들이 있으며, 또한 예전에는 자신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관을 비롯

36) 하천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장례 주관자인 '송○○씨'가 지도하여 상제들이 직접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37) 현재 제주도내 장의사들은 일정 지역을 독점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하고 있다. 표선리의 경우 기존의 장의사 외에 모슬포 지역의 장의사가 2005년도부터 진출하여 현재 장의사가 2곳이 있다.

하여 각종 장례 소도구 (동심절, 운삽, 불삽 등)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고 한다.

〈표 2〉 장례 주관자 현황

구 분	하천리	성읍1리	표선리
이 름	송○○씨 (1943년생)	현○○씨 (1926년생)	금○○씨 (1926년생)
연 령	65세	82세	82세
직 업	농업	농업, 목수	농업
장례 일을 시작할 때 연령	25세	35세	33세
동기 및 배경	장례 일을 하면 역병을 고치고 운수가 좋다고 하여 시작함	목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움	조상을 잘 모시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배움
전 수 자	마을 선배	선배 목수	마을 선배, 목수
학습 방법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전수받음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전수받음	직접 의례에 참여하여 배웠으며 예서를 참고함
현재 활동	가까운 친척 장례를 처리함	하지 않고 있음	하지 않고 있음

2) 탈상 기일의 단축

탈상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장례 이후의 의례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³⁸⁾ 이러한 상례의 축소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삭망제도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 현상은 조상 숭배 사상을 의례로 구체화한 유교가 현대에 들어와

38) 사라지고 있는 의례는 줄곡, 소상, 대상, 담제, 길제 등이다.

서 그 기반이 약화되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전통상례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매장 이후의 의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문상을 받는 풍습이 지속되었다. 1996년도에 북제주군에서 실시한 가정의례 간소화 캠페인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³⁹⁾에 의하면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주위의 체면(27.6%), 망인에 대한 불손행위(27.6%), 집안 어른의 반대(24.9%), 남이 하나까(19.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겹부조 안하기 미실천' 사유에 대하여는 남에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83%)와 주위의 체면(16%)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조사 당시인 1997년만 해도 농촌사회에서 소상 또는 대상인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 하지만 2008년 현재 탈상 의례를 공개적으로 하는 집은 거의 없다. 하천리와 성읍1리, 표선리의 경우 소기를 하게되면 대부분 가까운 친족만 모여서 야제로 축소하여 지내고 있다.

3) 공동체 규범의 약화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구성원들의 노동을 빌리지 않고 장례업자에게 모든 일처리를 맡김에 따라 마을 내에서 장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지에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으며, 서로를 구속하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이농현상 등으로 마

39) 제주일보 1997년 1월 15일자 기사. 199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6개 마을 주민 48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을 내에 젊은 계층이 없어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노동과 협조를 받지 않고 전문적인 장례업자를 통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참여자에서 방관자로 신분이 변동하고 있다. 장례 날 장지에 쫓아가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단지 음식만 먹고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장지에 쫓아가는 것은 상제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심리적인 의무감과 부담감을 갖고 행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구속하였던 규범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표선면 하천리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온 동네 주민들이 장례에 참여하여 노동을 제공했다. 일포날에 다음날 장례에 동원될 인력과 장비, 도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장례날 아침 새벽에 가까운 친척이 동네 사람들 집을 돌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불러 모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트럭 등을 몰고 나오는 데 동장이 3개조로 나누어 선발대는 묘지로 가서 개광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조는 떼(잔디)를 구하러 보내고, 또 한 조는 상가에서 운상 준비와 정리 작업을 하고, 묘지로 가서 다른 조가 구해 온 떼를 운반했다. 공동묘지에 묘지를 만드는데, 공동묘지가 오름 한 쪽 경사면에 조성되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떼를 운반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여 동네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일을 도왔다. 한 사람이 떼를 세 개 짊어지고, 30회 정도 왕복하였으며, 떼 운반을 비롯하여 산담 쌓기 등 필요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였다. 동별로 남녀노소 없이 떼를 옮겨주었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약 200명으로 같은 동의 사람들 전체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1992년도에 마을 공동묘지에 모노레일이 설치된 이후에는 협동노동

이 줄어들게 되었고, 청·장년층의 이농 현상으로 봉분을 쌓고 때를 구하여 입히는 과정에 일당을 주고 인력을 구하여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장의사에게 일괄하여 맡기고 있다. 장의사를 이용함에 따라 장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며, 상제 및 친척 30여명, 동네 사람 30명 정도, 친목 20명~30명 등으로 약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의사 이용에 따른 변화는 동네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처럼 동네사람들이 나서서 때를 구하는 일은 사라졌으며, 개광 작업이나 봉분 쌓는 것도 장의사가 동원한 전문 인력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전통사회에서 장례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과 참여가 필수적이었으며, 마을 공동의 행사로 치르면서 구성원들의 단합과 협력, 의무와 강제를 부여하면서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쉽게 노동력과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더 이상 마을 구성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농촌사회의 고령화, 젊은 세대의 부족 등의 현상은 이러한 공동체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상호 교환주의와 화폐 중심의 거래관계가 농촌사회에도 침투하여 상호작용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사회에서 삼년상을 치르지 않으면 같은 마을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유교 전통을 반드시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유교는 농촌사회의 질서와 전통을 지속시키는 기준이자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기준이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삼년상 문화가 사라져 버렸으며, 노인 세대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

자신들이 삼년상을 치르면서 고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관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관념이 보편적인 인식이 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상례는 마을 내의 규범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고리였다. 하지만 상례의 축소와 변화는 마을공동체 규범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다.

4) 풍수사상의 약화

정시의 역할 축소와 풍수사상의 약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묘지를 사용함에 따라 별도로 묘지 터를 보지 않게 되어 장례 과정에서 정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공동묘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입관 절차를 끝내고 상주와 정시가 묘지 터를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 납골당(묘)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묘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또한 기존의 묘지를 풍수지리에 따라 좋은 곳을 찾아서 이묘하는 사례도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에 벌초 문제 등 효율적인 묘지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묘지를 천리하거나 화장하여 납골당(묘)로 만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시의 역할 축소는 풍수사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정시는 묘지 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이 묻힐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묘지 터는 주검의 집이다. 삶의 집인 양택의 위치와 방위가 그렇듯이 주검의 집인 음택의 위치와 방위가 후손들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풍수사상이다. 하지만 정시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동묘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방향 관념도 더 이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⁴⁰⁾

풍수사상은 유교의 조상숭배와 배치되는 것이다. 유교의 조상숭배는 조상의 후손으로 자손이 존재하므로 조상에게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풍수는 이러한 효도와는 상관이 없다. 조상이 묻혀있는 땅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으로 조상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땅의 기운이 좋으면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합리주의와 이성애 따른 사고를 중시하는 근대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풍수사상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묘지 터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공동묘지에 묘지를 만들면 자손들에게 안 좋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

5) 장례 놀이, 전통 음식의 소멸

상례문화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놀이문화이다. 상여소리, 달구소리, 사또놀이⁴¹⁾ 등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던 놀이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상여소리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전승이 끊긴 상태이며, 달구소리는 일부 지역(대정읍, 안덕면, 구좌읍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던 사또놀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놀이문화들은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죽음을 처리하는 과

40) 하천리의 경우 최초로 마을 공동묘지가 만들어 졌을 때 방향이 나쁘다고 꺼려했지만 현재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있다.

41) 오문복의 『풍천약사』(풍천국민학교, 1987)와 김영돈, 고광민의 『제주민의 통과의례』(『제주의 민속 I』 제주도 별쇄, 1993)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정이 유교와 무속의례만이 아니라 민속의 건강한 심리를 반영하여 죽음을 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상여소리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상제, 후손, 이웃에게 당부, 인생 허무라는 소감, 그래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수용, 죽은 자에 대한 위로 등이 있다. 달구소리 역시 봉분을 쌓는 노동요가 아니라 의식요로서 망자와 상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은 각 마을마다 상여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어 받을 세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소멸되어가고 있다.

음식의 경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복제가 끝나면 필요한 음식을 자식들이 분담하기도 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돼지고기와 떡이었다. 떡의 경우 시루떡, 솔변, 절변, 인절미, 중계, 약계, 과질 등 일곱 가지였으며, 자식들의 수에 따라 종류가 결정되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날에 보편적인 떡은 ‘돌래떡’이지만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다. 1950년~1960대만 해도 운상을 하고 나면 ‘부역부침’이라 하여 돌래떡 2개와 오메기술 한 잔씩을 돌렸으며, 점심을 먹을 때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거나, 상여에 걸었던 ‘다포’를 길게 펴 놓고, 그릇이 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2~3명분의 밥을 퍼다 놓고 ‘바육꼬지’에 돼지고기 석 점을 떼어 하나씩 나눠주었다. 점심 식사는 나이 많은 어른 순서를 지켜서 했으며, 사용했던 다포는 상가에서 마을에 바쳐서 마을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통례였다.⁴²⁾ 또한 모든 일이 끝나면 필역이라 하여 상여를 운반한 사람들과 복친들에게 ‘등절미’라 하여 메밀이나 쌀로 만든 반달 모양의 큰 떡을 세 개씩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⁴³⁾

이러한 풍습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하였다. 장례날에 떡을 나눠주는 것은 하지만 떡집에서 만든 인절미와 같은 떡이 대부분이며, 점

42) 가시리 향토지, 『가스름』, 1988, 191쪽~192쪽.

43) 신례2리 향토지, 『공천포지』, 1994, 178쪽.

심 식사 역시 공동묘지에 만들어져 있는 식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이 도시문화를 쫓아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특히 표선면의 경우 일포날에 문상은 손님들에게 국수를 삶아서 대접하고 있다. 국수를 대접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남제주군에서 강력하게 전개했던 가정의례간소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 이전에도 일부 상가에서 국수를 대접한 적이 있었으나, 마을 전체적으로 국수로 통일한 것은 행정 당국의 정책을 주민들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6) 의례 공간의 변화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농촌사회에서도 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내의 농촌마을에서도 규모가 큰 지역은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있다.⁴⁴⁾ 장례식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병원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 공동묘지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다. 공동묘지의 도입과 죽음에 대한 전통 사상의 약화는 장례를 치르는 사회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을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도 집이 아니라 편리하게 손님을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선호하고 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44) 표선리도 2008년에 리사무소에서 추진하여 장례시설을 만들었다.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집은 태어나고 죽는 공간이며, 자신이 태어난 안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집은 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가신 신앙의 전통이 있으며, 이들 신들이 집과 가족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가신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해마다 지내던 문전철같이, 문전코시와 같은 의례가 농촌사회에서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소는 세대교체에 따른 영향이 크다. 40대~5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무속신앙에 근거한 의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며, 부모 세대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려는 인식들이 있다.

7) 부정 및 액막이 관습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에게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현세기 복적인 사고와 관습이 지속되고 있다. 택일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며, 택일하여 날자가 좋지 않으면 토룡을 하여 용미와 제절을 만들지 않거나, 나중에 다시 택일하여 이장을 하는 사례도 있다.

집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관습도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또한 집에서 운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을 확인받은 다음 장례시설로 옮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죽음을 ‘부정’⁴⁵⁾으로 받아들이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져온 부정으로 인하여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

45)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다. 숨이 멈춘 상태인 시신은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며, 시신을 접촉하거나 직접 보는 것은 금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대 농촌사회에서 유교가 더 이상 관습과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유교 의례의 전통이 존속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에 있어서 시신 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따라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이 유교 의례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4. 결론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유교와 함께 무속, 민간신앙에 근거를 둔 의례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는 유교 의례를 따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민간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의 형식(의례절차)과 무속의 내용(영혼과 저승 세계에 대한 사유체계)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화되고 있는 조상숭배사상은 현대의 상례를 시신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변화시키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의례 보다는 살아있는 상제들을 위한 기복 의례로 상례가 치러지고 있다. 이는 매장 이후의 의례들이 약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변화 현상은 장례 주관자의 소멸, 탈상 기일의 단축, 풍수사상의 약화, 공동묘지의 확산, 의례 공간의 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상숭배 사상, 풍수사상의 약화도 상례문화의 변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영혼'과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약화되고, 특히 조상신의 보살핌이라는 신앙보다는 현대 과학문명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상례가 수행

해왔던 농촌사회의 규범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해체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세대의 교체, 전통적인 가치관과 관습의 변화, 기존의 전통의 약화, 농촌문화의 도시화 경향 등 1990년대 이전의 농촌사회와 2000년대의 농촌사회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농촌사회 상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대 제주도 농촌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상례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의례이기 때문에 영혼관과 죽음관, 타계관의 문제가 중요하다. 제주도 문화에서 이러한 관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구조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전통의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유교 의례와 무속의례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역시 보완되어야 할 점이며, 상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제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제주도 농촌사회의 상례문화와 농촌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시리 향토지, 『가스름』, 1988, 191쪽~192쪽
- 김기태, 『제주도 상례의 실태와 그 특색』,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117쪽~130쪽
-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3호, 문화재관리국, 1966, 708쪽~715쪽
- 신례2리 향토지, 『공천포지』, 1994, 178쪽
-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 1974, 65쪽~67쪽
-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8, 22쪽
-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301쪽~324쪽
- 하천리 향토지, 『넷끼』, 1995, 141쪽~155쪽
- 현용준, 『제주도의 상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21쪽~343쪽
- _____,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362쪽~365쪽, 385쪽~386쪽
- 현승환, 『제주인의 일생』,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2007, 69쪽~103쪽

Abstract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funeral-rite's culture
in Je-Ju rural society

Jung, Hee-Jong*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funeral-rite's culture change and the social meaning of this change in the procession to destruct modern rural community. Funeral-rite's culture in Je-Ju has changed rapidly in 2000s. The change starts from inside funeral-rite culture by outside influences. A shift in generation to keep a rural community,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norm, the decline of existed tradition and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a rural culture have renovated briskly the rural society in 2000s. The aspects of these changes have affected largely funeral-rite's culture.

This article emphasizes on the various phenomena which construct funeral rite' culture and explains how it have changed. Also, this study summarizes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rough the concrete case studies. The issues with which I did not deal in this article are the view of the soul and death, the thought of another world,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ritual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Confucianism ritual and shamanism ritual. The funeral rite in the city has forfeited traditional form and transformed it into modern form. However, funeral-rite in a rural society is still working for important custom and people consider it of meaningful ceremony in kinship

* Graduate Cheju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and community. Also, ancestor-worship thought still has remained.

The maintenance and change of tradition are co-existed. Through the case studies this research will help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rural society's culture in Je-Ju.

Key Words

Funeral-rite, Funeral-rite's culture, Je-Ju rural society

교신: 정희중 415-778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05동 301호
(E-mail : dulbo1@hanmail.net 전화 : 010-7400-3765)

논문투고일 2009. 07. 02.

심사완료일 2009. 08. 06.

게재확정일 2009. 08. 17.